

경제

삼겹살값 4개월새 반토막...예년 수준 회복

국내의 출하 늘고 소비 줄면서 물량 넘쳐 이달에만 12% 하락...4분기 더 떨어질 듯

지난해 말 구제역 여파로 가격이 크게 올라 '금겹살'로 불렸던 돼지고기가 최근 들어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어 가격폭락 대책마련이 필요할 정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 여름 휴가철 예년 가격보다 30% 이상 비쌌던 삼겹살 소매

가격은 최근 예년 수준의 가격을 거의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호남 돼지 도매시장의 돼지 자육 평균 경락가격은 지난 21일 kg당 4088원으로, 불과 한 달 전인 지난달 21일 4636원에 비해 12%

나 하락했다. 돼지고기값이 가장 비쌌던 지난 6월 kg당 7500원대까지 올랐던 것에 비하면 4개월 새 반값 부근까지 떨어진 것이다. 돼지고기 가격은 지난 7월 초 6000원대 후반에서 8월 말 5000원대 초반까지 지속적인 하락을 거듭하다 이달 들어 3000원대 후반까지 떨어지며 하락세를 계속하고 있다. 소매가격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농수산물유통공사의 가격정보(www.kamis.co.kr)에 따르면 광주지역 양육시장과 3대 대형마트의 삼겹살(중품) kg당 평균가격은 지난 21일 1만7026원으로 지

난달 21일의 2만2600원에 비해 한 달 만에 3000원 가량 싸졌다. 예년가격이 1만6216원임을 감안하면 거의 구제역 여파를 벗어나 예년가격에 근접한 셈이다. 광주지역 평균 삼겹살 소매가격은 지난 7월 초 유통가를 앞두고 kg당 2만5650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했으며 이 가격은 같은 기간의 예년가격 1만7242원보다 8000원 가량 더 비싼 것이었다. 돼지고기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는 구제역 매몰처리 이후 축산농가의 재입식이 증가하면서 국내산 돼지고기 출하가 회복된 데다 외국인 수입고기 증대로 공

급이 늘어났고, 경기침체와 계절적 요인에 따른 소비 감소가 주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 축산농협 관계자는 "이런 추세라면 4분기 자육가격은 kg당 3000원대 초반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격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대응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농협경제연구소는 돼지고기 가격안정을 위해 ▲축산농가의 돼지 입식 조절 ▲돼지 생산 출하 유도 ▲국내산 돼지고기 소비 촉진 및 다양한 마케팅 전략 마련 등을 대책으로 제안했다. /임동률기자 exian@

주간 증시 포커스

IT섹터 상승률 여타업종 압도

자동차·내수주도 여전히 매력

지난주 KOSPI는 기대감으로 1800포인트 중반의 박스권 상단까지 상승한 후 숨을 고르는 모습을 보였다. 시장의 관심이 여전히 유망에 집중되어 있는 가운데 해럴드 도출을 위한 각 주체들의 움직임이 금융시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흐름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물론 중국의 경제 성장률 우려와 그리스 디폴트 가능성, 순간적으로 나타났던 수급 공백 등이 주가의 변동성을 높이기도 했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모습이다.

경기 둔화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졌던 미국 역시 예상을 뛰어넘는 경제지표들의 발표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의 3분기 실적 역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유럽 정상들은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증액 방안, 그리스 국제에 대한 민간 손실비율, 유럽 은행들의 자본확충 방안 등 유럽사태의 해법을 찾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론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가 EFSF 증액 방식을 놓고 좁혀져 접점을 잡지 못하고 있어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지만 독·프 양국이 공동성명서를 통해 포괄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임을 이미 천명한 바가 있고, 지난주 노조의 격렬한 반대시위라는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리스 의회 가결을 위한 최종 승인함에 따라 구제금융 지원을 위한 주요 장애물이 제거되는 등 최근 유럽사태가 조금씩이나마 진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이번 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이다.

최근 KOSPI를 비롯한 글로벌 주식시장이 유럽발 뉴스에 따라 금동락을 보이는 등 주가 변동성이 다소 커져 있다는 점에서도 이번 EU 정상회담 결과와 시장의 평가에 따라 단기적인 지수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다. 우선 EFSF의 증액규모와 방법에 주목하는 가운데 그리스 국제의 'Hair Cut' 비율에 대한 국가별 합의 과정을 통해 유로존의 공조지를 가능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KOSPI지수 변동성 확대 예상 속에서도 업종별 차별화 움직임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IT섹터의 주가 상승률이 여타 업종을 압도하고 있는데, 이는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전반적인 IT기업들이 부진한 3/4분기 실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양호한 미국 경기지표와 경기부양 기대감, 하반기 소비시즌 진입 등에 의한 모멘텀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리고 최근 경기둔화 우려로 기업들의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수준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적 모멘텀이 개선되거나 유지되는 종목군에 대해서도 시장의 율리 현상이 어둡지 가능성이 높다. 특히 경기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더욱 꾸준한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자동차 및 부품주도 이익의 안정성이 유지되고 있는 내수주에 대한 관심을 함께 유지할 필요가 있다.



박종모 <신한금융투자 광주지점장>



'KJB남도대장정 탐방단' 해단식. 광주은행 신입직원 11명과 직원 4명으로 구성된 'KJB남도대장정 탐방단'이 21일 오전 광주은행 본점에 도착, 해단식을 갖고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2012여수엑스포 성공개최와 광주은행 창립 43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이들은 지난 10월 17일 여수를 출발, 순천, 승주, 주암, 화순을 거쳐 4박5일 동안 총 160km에 달하는 대장정 길에 올랐다. <광주은행 제공>

신세계·롯데·현대百貨 수수료 인하안 제출

주요 백화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납품업체 판매수수료를 인하를 둘러싸고 대립한 가운데 '백화점 빅3' 기업이 모두 공정위에 인하안을 제출했다.

2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백화점은 이날 오후 납품업체에 대한 판매수수료를 인하안을 제출했다.

이 백화점 관계자는 "새 인하안은 지난 달 말 제출했던 당초 인하안보다 대상 브랜드 수를 늘렸다"고 말했다. 먼저 18~19일 인하안을 냈던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은 공정위로부터 보충자료를 요구받고 준비 중으로, 다음주 제출할 예정이다.

두 기업은 중소 수입업체가 '벤더업체(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납품을 대행하는 유통회사)'를 포함하지 않거나 대상 업체와 인허가 적용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부분을 보충하라는 요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필뉴스>

라마다플라자 광주, 3주년 사은잔치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이 개관 3주년을 맞아 이공고객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고객 사은행사를 갖는다.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은 11월 한 달 동안 1층 델리 레스토랑과 3층 일식당 뷔쇼, 17층 파라뷰 레스토랑&바 등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기념품을 제공하고, 투숙객에게는 연말까지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객실 패키지(사전 예약고객에게만 가능)를 선보인다고 23일 밝혔다.

광주권 최초 특1급 호텔인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은 지난 2008년 10월 23일 문을 연 이래 광주비엔날레를 비롯, 광주디자인비엔날레,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관련 FISU 실사단 방문, 세계한인무역협회 워크숍, 국제주니어엔드블대회, 국제월드배구대회, G20 정상회의의 관련 재무차관회의, 2011 도시환경협약 광주정상회의 등 국내외 행사를 치러왔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세계적 호텔 체인업체인 미국 워던 호텔그룹으로부터 최상위 등급으로 선정된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은 지하 3층, 지상 17층 규모로 120개의 객실과 피트니스&스파, 테라피센터, 연회장 등을 갖추고 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수출 활성화,뱅크개런티 가장 필요"

한국수출입은행-광주·전남 수출기업 간담회

광주·전남지역의 수출 중소기업들은 '뱅크 개런티'(은행의 기업보증)와 지역적 특성 배려 등이 수출 활성화에 가장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지난 21일 광주 서구 홀리데이인 호텔에서 광주·전남 소재 12개 수출중소·중견기업 CFO(Chief Finance Officer, 재무담당 최고책임자)를 대상으로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및 유로존 위기로 글로벌 경제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광주·전남지역 수출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출입은행 차원의 다각적인 금융지원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플랜트건설업을 하는 A중견업체 임원은 "최근 중동지역의 플랜트업종 호조로 일감은 많지만 시설투자를 위한 자금조달문제는 여전히 까다로운 편"이라며 "수출입은행이뱅크개런티를 통해 기업을 뒷받침하고

수수료 등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라기에 자동차부품을 수출하고 있는 B중견업체 임원은 "기업 신용도를 넘어 사업특성과 발전가능성을 보고 자금을 지원하는 자세도 필요하다"며 "수출기업이 많지 않은 지역 특성상 배려가 절실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간담회를 주최한 수출입은행 전국지역본부 총괄담당 장정수 부행장은 "수수료 인하 등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즉각 지역본부 차원에서 재검토하는 한편, 구체적·실질적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수출입은행 호남·제주지역본부는 지역특화사업(자동차·조선·가전·광산업·기계) 및 수출중소기업 전략적 지원에 집중하기 위해 올해 10월 현재 지역 110여개 기업에 1조 8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한국수출입은행은 지난 21일 광주 서구 홀리데이인 호텔에서 광주·전남 12개 수출기업 임원을 초청,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Large advertisement for Lotte JTB Travel & Life, featuring travel packages for various destinations like Korea, Japan, Europe, and China, with prices and departure dates.

Small text at the bottom of the advertisement containing contact information and terms of service.